



매디슨 한인 천주교회

본당신부: 박상훈 알렉산더 (224) 217-0512

사목회장: 홍진국 클레멘스 (608) 231-2350

본당홈페이지: <http://club.catholic.or.kr/thekccm>

[연중 제 22 주일]

2009년 8월 29일

† <미사 및 본당모임 안내>

이번주 독서: 이주형 베드로, 임일숙 수산나

다음주 독서: 미정

이번주 복사: 신승원 로이, 이연재 마르코

이번주 미사 해설: 김리미 멜라니아

다음주 미사 해설: 이민선 데레사

반 주: 조은영 베다, 조은경 수산나

회 계: 정상혁 토마스 아퀴나스, 유현영 사도 요한

친교실 정리: 4 구역

+ 지난주 우리의 정성

봉헌금: \$275

교무금: \$250

매일미사: \$ 15

합계: \$540

주 일 미 사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고 백 성 사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성 가 대 연 습	매주 토요일 오후 4시 [지하 성가 연습실 / 양지웅 라파엘]
친교 /간식 모임	매주 미사 후 [지하 친교실]

† <공동체 모임 알림판>

금요 성서모임	격주 금요일 (9월 11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금요교리: 신앙입문	격주 금요일 (9월 4일) 저녁 7시, 사제관. [신부님]
학부생 성서모임	추후 공지

† <오늘의 묵상>

유다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율법을 어긴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당연히 속죄 행위를 거쳐야 경건한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음식을 그냥 먹어선 안 된다는 의미가 이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규정을 완벽하게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꾸짖으십니다. '손만 열심히 씻으면 뭐 하느냐? 중요한 것은 마음을 씻는 일이 아니냐?'라며 질책하십니다. 유다인들은 떨떠름해합니다. 하지만 손 씻는 행위는 율법과 무관합니다. 굳이 의미를 부여한다면, 마음을 씻는 방법의 하나일 뿐입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얼마나 장쾌한 말씀인지요? 예수님이셨기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음식이 사람 위에 있었습니다. 먹으면 율법을 어기는 음식이 수도룩했습니다. 음식 자체에 '윤리성'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를 타파하셨습니다. 음식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는' 가르침입니다. 그것을 대하는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찌 음식뿐일까요? 사람이 만들어 낸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제 1 독서> 신명기 4,1-2.6-8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에 무엇을 보태서는 안 된다.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 >

<제 2 독서> 야고보서 1,17-18.21 ~22.27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

화답송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 수 있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 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복 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아버지는 뜻을 정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시어, 우리가 피조물 가운데 첫 열매가 되게 하셨네.

◎ 알렐루야.

+ 마르코 7,1-8.14-15.21-23

그때에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 몇 사람이 예수님께 물려왔다가, 그분의 제자 몇 사람이 더러운 손으로, 곧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았다. 본디 바리사이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은 조상들의 전통을 지켜, 한 움큼의 물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으며, 장터에서 돌아온 뒤에 몸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 밖에도 지켜야 할 관습이 많은데, 잔이나 단지나 돛그릇이나 침상을 씻는 일들이다.

그래서 바리사이들과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어째서 선생님의 제자들은 조상들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을 두고 옳게 예언하였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규정을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섬긴다.' 너희는 하느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영성체송]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 위해 간직하신 그 선하심, 얼마나 크시옵니까!

[오늘의 성가] 시작: 24 봉헌: 44 성체: 501 파견: 463

† <소식>

❖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공동체의 창립자이시고 정신적인 지주이셨던 강정렬 아오스딩 형제님이 지난 토요일날 선종하셨습니다.

화요일 날 visitation 후에 공동체 교우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연도를 드렸고, 수요일 장례미사에도 많은 교우분들이 참석하셔서 고인의 마지막 가시는 길에 인사를 드렸습니다. 장례 기간동안 크고 작은 여러 일로 도움을 주신 교우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도 중에 형제님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1989 년, 우리 공동체가 네살이 되었을 때, 초대 신부님이셨던 김정웅 신부님의 이임식에 맞춰 기념 문집 “영원으로 향하는 길목에서”를 만들었습니다. 벌써 20년 전이 되어버린, 당시 우리 공동체 초기 모습이 담긴 작은 글들이 실려있습니다. 이 문집에 공동체의 정신적 지주로서 성당 탄생때부터 줄곧 공동체와 함께 하였던 강정렬 아오스딩 형제님이 당시 공동체를 돌아보며 교우들에게 주시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제안의 글을 쓰셨습니다. 이제 고인이 되신 형제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신앙과 공동체 사랑의 정신을 기억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여기에 형제님의 글을 옮깁니다. - 홍진국 클레멘스>

공동체의 지난 4 년을 돌아보며

<강정렬 아오스딩>

지금으로부터 4 년전이니까, 1985 년 가을이었다. 시카고에 사는 친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주말에 부부동반으로 우리집에 놀러오고 싶은데 괜찮겠느냐고 묻기에 물론 좋다고 했다. 몇 해동안 이민생활을 하여온 그는, 그동안 부인을 너무 고생시킨 것 같아, 한번 위로차 나들이를 하고 싶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으려니, 나도 그래야 할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 내 아내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었다. 얼마후, 그 친구로부터 또 전화가 걸려왔다. “강선생, 부산에 계시던 제 시메온 신부님을 아느냐?” 하고 묻기에 안다고 대답하니, 그는 제 신부님이 지금 시카고에 계시는데, “강선생님집에 간다면, 나도 가고 싶다.”고 하셨단다. 꼭 모시고 오라고 했다. 그로부터 얼마후, 다시 전화가 왔다. 한국 수녀님 한분도 제 신부님과 동행하고 싶다고 하신다가에, 흔쾌히 응낙하였다. 이렇게 되고보니, 문제는 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다. 내친김에 제 신부님 오시면 미사를 부탁드려야지.... 자, 그러자면 한국 교우분들에게 알려야 할텐데 하는 생각에 부랴부랴 한국교우를 찾아 나섰다.

1985 년 9 월 2 일, 미사시간이 가까와 오자 근 40 여명의 교우들이 모여들었다. 뜻밖의 일이었다. 우리집 앞에 이렇게 많은 차가 파킹하기는 처음이었다. 오랫동안 한국 교우들을 만나게 된 줄기만 한데다가, 한국 신부님 모시고 미사를 드리게 되었으니 모두들 기분이 들떠 있는 것 같았다. 미사 후에도 다정하게 모여앉아 이야기가 계속되었다. 이 모임이 계기가 되어 매디슨 공동체가 생겨난 것이다. 그 때를 돌이켜 보면,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의 생각 (계획)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 (방법)은 너희 길과 다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난다. 지난 4 년간의 우리 공동체의 발자취를 돌아보며, 몇가지 그 특징을 생각해 본다.

매디슨 공동체의 특성

첫째, 자생적인 평신도 위주의 공동체다. 누가 계획하고 만든 것이 아닌 평신도들의 자생적인 모임이다. 그러면서도, 평신도들과 성직자가 하나가 되어 출발하였다는 사실이다.

둘째, 젊은 교우들의 모임이다. 절대다수의 교우가 학생들이다. 일반교회가 노년층이 태반인데 비하면 특이하다. 흔히 젊은이들이 종교를 멀리한다는 말이 우리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 옆면 계속

세째, 비교적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본다. 대개 교우들이 선출한 임원들의 결정을 신부님의 추인을 얻어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 시대에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하며 민주적으로 교회공동체가 운영된다는 한 모델이 될 수 있다.

발전적 제안: 보다 나은 앞날을 위해 몇가지 반성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첫째, 임원들은 공동체 운영에 교우들이 참여의식을 갖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였으면 한다. 또한 임원및 교우회장 선출방법을 재검토 하였으면 한다.

둘째, 연간 사업계획을 분기별, 월별로 분류하여, 재검토 해가며 충분한 사전준비를 해가며 추진하였으면 한다.

세째, 월별, 분기별 사업진행 현황을 교우 임시총회 (미사후)에 보고하고, 교우들로부터 건의를 듣도록 하였으면 한다.

넷째, 공동체 구성원인 교우들의 소그룹 활동을 적극 격려, 지원하여야 한다. 성가대, 기도의 모임, 교리공부의 모임, 성경공부의 모임등 정기적인 모임을 만들어 각 교우들이 적어도 어느 한 그룹의 한 멤버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권할 필요가 있다. 결국 전체 공동체의 활력은 이들 소그룹 활동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결론: 조직체의 운영은 그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어 그것을 따르는 것이 효과적이다. 교회 공동체도 한 조직체인 만큼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개인들의 선의, 열성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곧 말쑥과 구성원들의 무관심으로 침체에 빠지게 된다. 일반 통념적인 민주주의와 교회내에서의 민주주의와의 차이점은 교우들의 총회, 사목위원회의 결의사항이 사제의 인준을 얻어서 비로소 집행한다는것 뿐이며, 의결과정은 일반 민주주의 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끝으로, 가장 이상적인 경로로 시작되었고 운영되어 오는 우리 매디슨 한인 가톨릭 공동체가 사제의 지도아래 민주적인 운영으로 계속 향상, 발전되기를 비는 바이다.

† <알려드립니다>

❖ 오늘 미사 중 공지사항 때 2009년 전반기 회계보고가 있겠습니다. 회계보고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당 수입의 절대부분을 교무금과 봉헌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성당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아직 교무금을 약정하지 않으신 교우분들은 회계담당 사목위원께 교무금을 약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오늘 미사 후 공동체가 함께하는 저녁 식사가 있겠습니다. 항상 공동체 저녁식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시는 성모회 자매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동체 저녁 식사를 위해 봉사해 주실 수 있는 교우분들은 사목회장이나 성모회장님께 알려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가을학기 주일학교가 9월 12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주일학교 대상 자녀를 둔 교우분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일학교를 위해 봉사해 주실 수 있는 교우분들께서는 이은아 아네스 자매님께 알려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 9월은 우리 공동체가 24주년이 되는 달입니다. 따라서 9월 12일 미사는 창립기념일 및 개강 미사로 할 예정이며, 미사 후 공동체의 생일을 축하하는 간단한 다과회가 있을 예정입니다.